

F/T13 컨셉트

이야기를 여행한다

‘F/T프로그램 디렉터
아이바 치아키

[이야기]는 인류의 모든 시대,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다. 옛날 신화나 민화, 연대기부터 우화나 종교의 교전, 소설이나 희곡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실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문명이나 공동체를 구축해왔다. 실제의 사건에 입각한 것으로부터 기상천외한 픽션까지 인간의 상상력이 엮어온 무수한 [이야기]는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계승되고,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진화하면서 텔레비전, 만화, 게임, 커머셜, 마케팅, 인터넷 제시판, 도시전설 등, 현대의 모든 미디어나 [말하기] 속에 들어가, 우리의 행동과 정신에 깊게 작용하고 있다.

또 [이야기]는 공동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상시, [나]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을 감히 의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떤 순간, 그 [이야기]가 어떠한 이유로 단절되고 계속할 수 없어졌을 때---, 갑자기 일상에 균열이 생겼을 때,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자신의 심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때까지 자신이 엮어온 [나]라는 [이야기]의 존재와 그 손실을 앞두고, 자기자신에게 다시 물어보게 될 것이다. [나(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나(우리)는 누구인지? 나(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라고.

그리고 다시 [나(우리)]라는 [이야기]를 엮어가려는 것이 아닐까.

철학 세계에서는 예전에 잔=프랑소와·리오타르라는 사상가가 [큰 이야기의 종언]을 제창해서, 근대사회를 보편적으로 규정하는 가치관이나 역사, 사회 시스템이라는 큰 테두리가 상대화되었다.

그러나 그 30년후를 사는 우리는 현실 세계에 있어서 [큰 이야기]가 끝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아무리 세계가 단편화되고 [작은 이야기]가 무한하게 난립되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큰 이야기]의 부재를 참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단순화된 [큰 이야기]를 날조해, 매달리려고 하는 것이다.

3.11 이후를 사는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다시한번 [이야기]의 역할과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야기]라는 것이 뭘까. 그것을 말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원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단순한 공감이나 동화, 동조를 위한 도구가 아닌 [이야기]라는 게 어떤 것일까.

미디어 환경의 극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야기]의 생성·소비·재생의 모습도 변용된 현재, 연극이라는 미디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과 마주하기 위해서 이번 F/T에서는 「이야기를 여행한다」라는 테마를 기반으로, 시대와 공간을 넘어 다양한 이야기와 다시 만나가고 싶다. 먼 역사부터 미래의 픽션까지, 개인의 작은 이야기부터 장대한 신화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상상력이 낳아낸 다양한 이야기를 종횡무진으로 돌아다니는 여행을 거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미래를 향해서 갱신할 수 있을까.

3.11 지진은, 현실이 허구를 초월하는 공포와 허무감을 우리에게 가져왔지만, 원래 인류는 지금까지도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이나 다 말할 수 없는 역사를 몇번이라도 겪어온 것이다. 그때마다 인간은 그 사태를 극복해서 세계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온 상상력을 구사해 픽션을 창출해 온 것이 아닐까. 호주의 극단 백·투·백·씨어터는 힌두교의 신, 가네이샤가 히틀러에게 빼앗긴 행복의 상징, 卍(만)의 문장을 되찾으려고 시공을 넘어 여행한다는 기상천외한 픽션에 의해서 파시즘에 대한 비판을 해악적으로 그려낸다.

작년, 대나무를 사용한 대담한 야외 퍼포먼스로 F/T상을 수상한

난당·아라데아가 인솔하는 씨어터 스튜디오·인도네시아는 이번, 1883년에 발생한 세계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쿠라타카우의 대재해의 사실에서 착상을 얻어, 인간과 자연의 길항을 신화적인 픽션으로 승화시킨다. 한편, 3.11 이후의 일본에 있어서 다수의 표현자가 리얼리즘으로부터 픽션의 탐구로 관심을 이행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다. 20세기 러시아 영화의 거장 안드레이·타르코프스키는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스토커] [싸크리파이스]라는 영화 속에서 핵의 위협을 예언적으로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극작가·마즈다 마사타카와 연출가·마츠무토 유키치는 타르코프스키의 이미지를 계승하면서 후쿠시마 이후를 비추는 새로운 픽션의 창조에 도전한다. 체르핏츠키의 오카다 도시키도 지진후에 새로 쓴 [현재지]로 어떤 공동체에 거래하는 눈에 안 보이는 변화와 불안을 앞에 둔 마음의 요동을 SF적인 표현으로 떠올린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연극에 있어서의 픽션의 힘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또 연극은 옛날부터 신화나 종교 교전등과 함께, 그 시대나 공동체에서 필요하게 되는 이야기를 희곡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계승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스 비극으로부터 근대 희곡, 일본의 고전희곡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에 존재하는 희곡들은, 말하자면 [이야기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시대나 지역을 넘어서 공유되고, 실로 다양한 표현자의 상상력을 자극해, 거기에 새로운 해석이나 개입을 낳아내고 있다. 이차 창작, N차 창작이라고도 말하는 이러한 이야기의 확장성을, 지금, 연극의 상상력이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 물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도전해왔고,

에도시대부터 구전된 이야기 [요츠야괴담]을 소재로 한 창작을 두 팀에게 위촉했다.

고전예능의 깊은 지식과 관심으로 가부키의 재창조를 도모하는 기노시타 유리치가 인솔하는 극단·기노시타 가부키는 이번, 연출에 수기하라 구니오를 맞이해 4세 츠루야 난보쿠의 가부키 강언(교젠) [동해도 요츠야 괴담]을 동시대의 균중극으로서 제시한다. 지금까지도 해외 회곡의 대담한 번안을 다뤄온 나카노 시게키는 드라마 트르그의 나가시마 가쿠와의 공동작업으로 [동해도 요츠야 괴담]의 원전인 [요츠야 잡담집]에 주목해,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서의 [사건]과 [요츠야 잡담집]에서 떠오르는 [이야기], 이번에 새로 나카노 자신이 창작하는 [픽션]의 세가지의 층을 에도/도쿄의 도시 공간 속에 인스톨하는 것이다.

에도/도쿄의 시공이나 복수의 등장인물들을 횡단하면서 우리는 어떤 패러렐월드를 체험할 수 있을까. 또 지금까지도 드라마나 캐릭터에 주목해서 현대의 우화를 창작해 온 샘플의 마츠이 슈는 이번, 그리스 비극의 [오이디프스]의 2차창작으로 동물이나 식물, 인류를 횡단하는 생명윤리의 문제를 깊게 추구하는 창조에 임하는 것이다.

한편, 역사나 국가 시스템, 이데올로기 등, 근대사회 속에서 인간이 낳아온 [큰 이야기]는 우리의 생활이나 사고, 공동체에 있어서 공통적인 질소나 테두리를 주는 반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서 넘쳐버린 익명의 [작은 이야기]를 짝 지워버리는 위험성도 포함하고 있다. 지진후의 일본을 덮은 슬로건이나 정책, 역사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강해지는 이웃나라와의 긴장관계등도 차질하면 안이한 [큰 이야기]에게 회수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때 연극은 그 유혹에 저항하고 어떻게 개유의 이야기, 복수의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어프로치로서 [아랍의 봄]이라는 대문자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중동·아랍 지역에서 라비아·무르에들에 의한 세가지의 최신작을 특집한다. 아랍의 봄에 실망한 가상의 아티스트/액티비스트의 자살, 레바논 내전에서 장애를 입은 무르에가 진 남동생의 인생, 수렁화되는 시리아 내전에서 시민 저널리스트들의 죽음. 이러한 세가지의 이야기는 그것을 표상하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포하면서 우리들 앞에 이야기/역사에 대한 마이크로 날카로운 시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 작년의 연속공연으로 이슈가 된 호주의 노벨상 작가 엘프리데·예리네크는 [빛이 없는.]

[빛이 없는Ⅱ(후쿠시마-에피로그?)]에 계속해, [빛이 없는.(프로로그?)]라는 단편 회곡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이후의 세계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는 이 회곡의 연출을 이번에 새로 두명의 제작자에 위촉한다.

미야자와 아키오는 이번, [노(能)]의 형식을 참조하면서 예리네크의 말과 사자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시도에 도전한다. 또 오자와 츠요시는 미술가야말로 가능한 어프로치로서 예리네크의 말을 시각적으로 수용하는 인스타레이션/퍼포먼스를 창작한다. 예리네크의 말을 맡은 두 제작자는 후쿠시마 이후라는 터무니없이 큰 이야기에 대처하면서 우리의 눈 앞에 어떤 가상세계를 출현시켜줄 것일까.

심지어 [이야기를 말한다]라는 행위 자체를 생각하는 시점으로서, 팀·엡체르스가 인솔하는 포스트·엔터테인먼트 작품을 소개한다. 원래 [이야기를 말한다]라는 게 어떤 일인지? 누가 그 이야기를 말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탈구와 탈선의 유머러스한 퍼포먼스에서 떠올라 올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도 이야기를 생성하는 잠재력이 축적되고 있을 것이다. 다큐멘터리 연극의 선구자 리미니·프로토콜은 이번, 도쿄 23구의 통계 데이터에서 추출된 100 명의 일반시민을 무대에 올려, 도쿄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태나 멘타리티를 교묘하게 트레이스해서 가시화한다. 또 지금까지도 사회와 연극을 잇는 독자적인 OS를 계속 발명해 온 Port B의 다카야마 아키라는 아시아 제지역에서 여러한 이유로 도쿄로 이주해온 이민들이나 유학생들의 커뮤니티를 둘러싸고, 거기서 말해지는 이야기/역사에 귀를 기울이는 여행을 관객과 함께 만들어간다. 이러한 연극적인 장치를 통해 우리가 사는 도시 [도쿄]에 퇴적하는 방대한 개인의 이야기와 집단의 무의식이 틀림없이 떠올라 올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이민자가 계속 증가하는 한편, 특정의 아시아 커뮤니티에 대한 뚜렷한 차별이나 배척도 산견되는 오늘의 일본에서 [안에 있는 타자]로서의 아시아를 역사와 미래의 접점에서 다시 파악하는 작업은 긴급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에 4 번째를 맞이하는 공모프로그램에서도 이 과제와 마주하면서 계속 아시아에 있어서의 창조와 비평의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 아시아 각지에서 젊은 재능들이 도쿄에 모여, 미지의 관객이나 비평을 만나는 것. 거기서 대화가 태어나, 서로가 차이를 인식함에 의해 새로운 창조의 다이내미즘을 아시아에게 환원하는 것. 그러한 비전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공모프로그램에서는 이번에 아시아에서 모이는 9 조의 아티스트나 비평가, 관객과의 대화는 물론, 아시아의 페스티벌이나 극장이라는 이니시아티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아시아에 있어서의 크리에이션과 비평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해나간다.

또 이번부터 새로이 「F/T오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것은 문자대로 「페스티벌을 열어가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기존의 이니시아티브나 네트워크, 다양한 문화적· 상업적인 자원과 제휴하면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페스티벌을 즐기고, 참가하는 기획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프로그램이다.

F/T의 개막을 올리는 F/T13 오프닝· 이벤트나, 지역 커뮤니티도 말려 들게 한 F/T모브· 스페셜, 심지어 이번 의 메인 비주얼에도 기용한 일러스트레이터 오카무라 유타에 의한 이미지가 이케부쿠로의 거리에 넘치는 플렛그 프로젝트등에 의해서, F/T는 한층 더 도시에 침투해, 도시를 각성시켜, 도시와 놀게 될 것이다.

또 미술가 츠바키 노보루가 고안하는 거대 오브제가 페스티벌의 심볼로 출현한다. F/T에서 공연되는 여러가지 이야기와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페스티벌이라는 판 자체를 북돋울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이번 F/T에서는 지금까지의 5 년간의 축적 위에 더한 미션의 재정의를 실시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현재 「새로운 가치를 창조· 발신하는 페스티벌」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과 대화의 장소로서의 페스티벌」 「아시아의

플랫폼으로서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3개의 미션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는 F/T는, 기본적으로 크리에이션형의 페스티벌이며, 아티스트와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에 근거하는 작품 창작·발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F/T의 근본 이념에 대해서, 또 그것으로부터 파생하는 실천에 대해서, 더 오픈하게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그 자리에서는 페스티벌이 입각하는 공공문화정책의 근본이념과 그것이 보증해야 할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역사와 세계를 참조하면서 다시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열린 논의를 거치고, 이 페스티벌이 미래로 계속되는 새로운 이야기/역사를,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엮어 나갈 수 있음을 바라고 있다.

소우마 치아키 Chiaki Soma

1975 년생. 와세다대학 제일문학부 졸업 후, 프랑스·리옹 제 2 대학·대학원에서 문화 정책 및 아트 매니지먼트를 전공. 2002 년부터 NPO 법인 아트 네트워크·재팬 소속. 주된 활동은 도쿄국제예술제 「중동 시리즈 04-07」, 요코하마의 예술창조거점 「큐나 사카(가파른 비탈)스튜디오」를 설립 및 디렉션(06-10 해) 등. 2009 년 F/T창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F/T 전기획의 디렉션을 담당하고 있다. 2012 년도부터 문화청 문화 심의회 문화정책부회 위원.